

500년 전 조상 혼령(魂靈)이 현몽(現夢)한 까닭은?

사람들은 사후(死後)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혼령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 한다. 필자는 조상 혼령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2020년 봄에 확신하게 되었다.



권대봉 인천재능대학교 총장(북아공파 36세)

통정대부(通政大夫) 증 홍문관부제학(贈 弘文館副提學) 안동권공(安東權公) 휘(諱) 진(眞) 묘갈명(墓銘略)

1490년(성종 21년)에 안동 풍천의 정산(井山) 자락에 드러운 천혜의 가곡동(佳谷洞 가일 마을)에서 태어나신 공(公)의 휘(諱)는 진(眞), 자(字)는 군안(君安)입니다. 공께서 1521년(중종 16년)에 32세로 별세하신 지 500년을 앞둔 올해 어느 날, 이 묘갈명을 구상하느라 노심조사(勞心焦思)하던 저의 꿈에 삼각산처럼 생긴 정자관(程子冠)을 쓰신 젊은 모습의 사대부가 나타나셔서 “역사를 보고 이러 이리하게 쓰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께서 현몽(現夢)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놀랍고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가일 마을이 절의(節義)의 고장으로 불리게 된 데는 조선왕조 중기에 문신으로서 백성과 나라를 위해 개혁정치를 펼쳤던 공의 기개와 올곧은 선비정신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가일 마을의 안동 권문은 조선왕조 때 참혹한 화변(禍變)을 세 번이나 당했는데, 공은 두 번째 화변의 역울한 희생자이십니다.

첫 번째는 1504년(연산군 10년)의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충청도관찰사, 도승지, 예조참판, 동지중추부사, 그리고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셨던 공의 아버지 화산(花山) 휘(諱) 주(住) 1457년~1505년) 공께서 평해(平海)로 유배당하셨고, 이듬해에 사약(賜藥)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1506년 9월의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의정부 우참찬 겸 홍문관 대제학으로 추증되어 신원(伸冤) 되었고, 같은 해 11월에 다시 장례를 치르도록 허용되어 국장의 예를 갖추어 평해에서 가일로 이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께서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과 이조좌랑(吏曹佐郎)을 역임하시고 홍문관(弘文館) 수찬(修撰) 겸 지제교(知製敎) 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으로 봉직하시다가, 1519년(중종 14년)의 기묘사화(己卯士禍)로 파직 당하신 후에 그 여파로 일어난 1521년(중종 16년)의 신사무육(辛巳經獄) 때 조작된 역모로 억

울하게 희생되신 것입니다. 그 후 65년이 지난 1586년(선조 19년)에 안처겸의 후손들이 제기한 송사의 결과로 뒤늦게 무고(誣告)로 밝혀져서 복권되었고, 별세 후 225년이 지난 1746년(영조 22년)에 홍문관 부제학으로 추증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1728년(영조 4년)의 이인좌(李麟佐)의 난(亂) 때에 공의 종(從)6대손인 증사헌부지평(贈司憲府持平) 병곡(屏谷) 휘(諱) 구(渠 1672년~1749년) 공이 당한 억울한 고초입니다. 이인좌의 동생이 갑자기 병곡 공을 찾아와서 만났던 일 때문에, 적당(賊黨) 가담의 혐의를 받고 서울로 압송되어 영조의 친국(親鞫)을 받았습니다. 병곡 공의 올곧은 자세와 인품에 감동한 영조의 특지(特旨)로 곧 석방되었습니다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신 것입니다. 불행중다행(不幸中多幸)으로 이 사건은 공께서 별세하신 후 225년이 지난 1746년(영조 22년)에 홍문관 부제학으로 추증(追贈)되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곡(屏谷) 공을 친국(親鞫)하면서 집안 내력을 조사했을 영조가 18년 만에 공을 부제학으로 추증한 것은 공의 선비정신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학문을 탐구하고 인의(仁義)를 실천하여 나라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의 홍문관 부제학 추증 교지를 받은 병곡(屏谷) 공이 증부제학공을 위한 분황고유(焚黃告由)를 거행했습니다. 병곡(屏谷) 공은 관직에 진출했던 조상들이 잇단 사화(士禍)의 희생(犧牲)이 되었음을 절통히 여겨 출사하지 않고도 애국애민(愛國愛民)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서예(西厓) 류성룡(柳成龍) 선생과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선생의 학맥을 계승하면서 학문 탐구와 후학 양성에 진력해 수많은 문인을 배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향촌 백성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사회활동을 하신 결과, 유림(儒林)의 공의(公議)로 불천위(不遷位)로 모셨습니다.

공께서는 21세인 1510년(중종 5년)에 생원이 되었고, 28세인 1517년에 성균관 유생(儒生)으로 고려(高麗) 말의 충신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선생과 조선 유학의 선鞭(先鞭)을 잡은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선생의 문묘종사(文廟從祀)를 청하는 상소문을 세 번이나 올려 마침내 포은 선생을 문묘에 배향하라는 국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한훤당 선생은 훗날 퇴계 선생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뒤늦게 배향되었습니다. 29세의 포의(布衣)인 공께서 1518년 8월에 소격서(昭格署)를 혁파하여 국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상소를 두 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임금에 윤택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듬해에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선생의 상소로 소격서가 처음으로 혁파되었습니다.

공께서는 30세인 1519년(중종 14년)에 현량과(賢良科)에 급제하여, 5월에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 7월에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9월에 이조좌랑(吏曹佐郎)을 거쳐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으로 재직하시면서 개혁을 추진하시던 중, 11월 15일의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인해 국가발전을 위해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파직되셨는데, 이는 가문의 불행을 넘은 국가적인 불행이었습니다.

공께서는 국왕이 정사를 바로 펼칠 수 있도록 인사와 정치 전반에 걸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삼사(三司)중 최고의 간쟁기관인 사간원(司諫院)의 정언(正言)으로 고위 관료를 탄핵하는 소임을 가진 대관(臺官)의 직무, 그리고 국왕의 과오나 비행을 직접 비판하는 간쟁(諫諍)의 소임과 왕명과 조직의 합당하지 않은 것을 봉합하여 되돌려 반박 의견을 내는 봉박(封駁)의 소임을 가진 간관(諫官)의 직무를 함께 수행한 대간(臺諫)이었습니다. 이후 공께서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조좌랑(吏曹佐郎)을 거쳐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궁중의 서적과 문한편수(文翰編修)의 일을 관장하셨고, 부수찬(副修撰)과 함께 왕이 내리는 교서(敎書)를 짓는 지제교(知製敎)를 겸임하셨습니다. 아울러 공께서는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으로 국왕에게 학문적 자문과 정치적 자문을 하시면서 조정(朝廷)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언관(言官)으로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시다가 기묘사화를 당하셨습니다.

기묘사화를 초래한 원인은 작용(作用)과 반작용(反作用) 법칙이 작동한 때문이었습니다. 1519년(중종 14년) 10월 대사헌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선생 등 사림파는 중종반정의 정국공신(靖國功臣) 117명 가운데 자격이 없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들어 이들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6명의 훈작 삭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종은 위훈삭제(僞勳削除)를 단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림파의 작용(作用)에 대한 훈구파의 반작용(反作用)으로 기묘사화가 일어나서 개혁세력인 사림파가 희생당한 것입니다. 원래 사림파의 지지자였던 중종은 사림파가 자신을 왕위에 올린 훈구파를 압박하고, 자신에게도 수기치인(修己治人)으로 성인(聖人)이 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훈구파 대신들이 궁녀를 시켜 나뭇잎에 꼴로 ‘조씨가 왕이 된다’는 의미인 ‘주조위왕(走肖爲王)’이라고 써서 벌레들이 파먹게 한 다음, 이것을 중종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사헌 조광조 선생을 비롯한 개혁적인 사림파 관리들을 역모죄로 몰아서 제거한 사화가 기묘년에 발발하여, 공께서는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겸 지제교(知製敎) 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의 자리에서 파직당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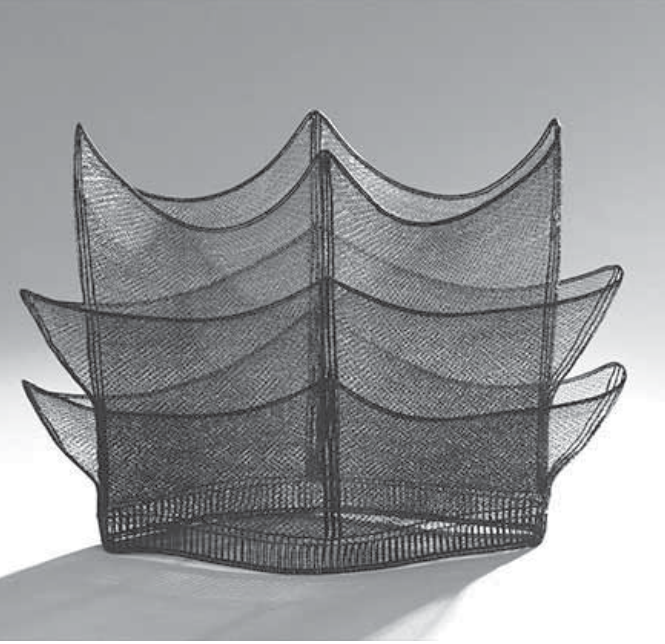
기묘사화에 희생된 인물들을 흠모하여 오늘날 기묘명현(己卯名賢)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사림파의 개혁실패에 대하여 정책의 추진 속도가 너무 급진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무력(武力)의 뒷받침 없이 명분(名分)과 문력(文力)으로만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무력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에게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묘사화의 여파로 1521년(중종 16년) 신사무육이 일어났습니다. 공께서는 세종(世宗)의 증손 시산정(詩山正) 이정숙(李正叔)과 좌의정 안당(安堂) 선생의 아들 안처겸(安處謙) 형제 등과 함께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애국충정의 담론을 하셨습니다. 이때 함께 있었던 송사련(宋祀連)이 출세를 목적으로 이를 역적모의라고 조작하였습니다. 공께서는 신사무육으로 국문을 받으실 때 “천운인가?”라고 한탄하시며 꽃꽂이 자제로 역모가 조작되었음을 토로(吐露)하셨지만, 무지막지(無知莫知)한 난장(亂杖)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사람도 울었습니다. 천지만물(天地萬物)이 모두 공의 억울한 요절(夭折)을 애도(哀悼)했습니다.

나라에 도(道)가 없었던 탓에 며칠 후에는 시신에 대해서도 형벌이 가해져 유체(遺體)를 수습하지도 못해 유탁(幽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공의 종(從)12대 손으로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인 33세(世) 우암(友巖) 휘(諱) 준희(準禧 1849년~1936년) 공이 충주 북촌(北村) 말효산(末詒山)에 안장된 증숙부인(贈淑夫人) 광주(廣州) 이씨(李氏) 묘소에 증부제학공을 신령합장(神靈合葬)하였습니다. 증숙부인(贈淑夫人) 광주(廣州) 이씨의 선조는 둔촌(澗村) 이집(李集) 공, 증조부는 형조판서 증(贈)좌의정 이극강(李克壘) 공, 조부는 경기도관찰사 이세우(李世佑) 공, 아버지는 홍문관 박사(博士) 이자(李祜) 공의 막내 따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늘 화목(和睦)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공의 형님이라는 이유로 사락정(四樂亭) 휘(諱) 질(質 1483년~1545년) 공께서 삭탈관직(削奪官職)을 당하시고, 예안에서 18년간 유배생활을 하시면서 청년 선비 이항(李滉)과 인간적으로 교류하신 인연으로 그를 사위로 맞았습니다. 퇴계 이항 선생이 공의 질녀(姪女)를 정실부인으로 맞이한 것은 그의 인품이 높고 도량이 큰 덕분이라고 하겠으나, 사락정 공과 퇴계 선생의 웅서(翁婿)간 지동도합(志同道合)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갑자사화 때 거제도도 유배되셨다가 중종반정 때 신원(伸冤)되어 풀수당했던 가산을 돌려받은 사락정(四樂亭) 공께서 서울 필동의 집을 사위인 퇴계 선생에게 물려주신 연고로, 그 앞을 지나하는 도로가 오늘날 퇴계로(退溪路)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사락정(四樂亭)이란 원래 공의 형님께서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로 옮겨 살면서 지었던 정자의 명칭입니다. 공의 형님께서 사위에게 편지로 당초 작명을 부탁하셨을 때, 퇴계 선생은 시골에서



정자관(程子冠)

누릴 수 있는 농사짓기, 누에치기, 나무하기, 고기잡이를 네 가지 즐거움이라 하여 사락정(四樂亭)이라고 짓고 시(詩)를 지어 장인에게 물었습니다.

송사련의 역모 조작으로 공께서는 1521년에 신사무육 때 좌의정 안당(安堂) 선생과 그의 아들 안처겸 형제 등 안씨 일문과 이충건(李忠健)·조광좌(趙光佐) 등 많은 사람과 선비들과 함께 억울하게 희생당하셨습니다. 65년 후인 1586년(선조 19년)에 안처겸의 후손들이 제기한 송사의 결과로 역모가 조작된 것이 밝혀졌고, 공께서도 함께 복권되었습니다. 공을 무고(誣告)했던 송사련은 상을 받고 첨지(僉知) 벼슬을 하였으나, 사후(死後)에 죄인이 되어 직(職)이 해면(解免)되었습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었지만 사필귀정(事必歸正)이었습니다.

공께서는 짧은 기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증진(增進)하기 위해 강직하게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역량을 발휘하실 즈음에 기묘사화로 이상(理想) 실현(實現)이 중단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신사무육에 희생되어 천수(天壽)를 누리지 못하셨던 그때의 한(恨)을 형언조차 하기 어렵지만, 곧은 선비정신으로 인의(仁義)를 실천하셨던 군자의 도(道)는 영원히 빛날 것이오니 이제는 한을 푸시고 영원한 명복(冥福)을 누리시길 빕니다.

가곡동(가일 마을) 시습재(時習齋) 37세(世) 종손(宗孫) 종만(鍾萬)과 36세(世) 대직(大直) 족형(族兄)으로부터 공의 묘갈명을 쓰라는 하명을 받들어, 서기 2020년 봄에 인천재능대학교 제16대 총장 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며,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5대 원장으로 공직에 봉직했던 공의 15대 방손 대봉(大鳳)이 이 글을 지었습니다.

안동권씨대중회 부회장인 권대봉(權大鳳)교수는 현재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다. 북아공파 36세로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동 출생이다.

- 주요경력으로
-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교육행정학과 조교수
 -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국제전문인과정 (VIPP) 초대 Director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및 사범대학 학장
 - 교육인적자원부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5대 원장(차관급 국책연구기관장)
 - 세계은행(The World Bank) 컨설턴트
 - 방글라데시 SEIP(Skills for Employment Investment Program) 국제정책자문역 등을 역임하였다.

2020年 5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안동권씨 종보대금을 납부해주신 족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알찬 종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위: 원

권계동(안동) 30,000	권영길(안동옥동) 30,000	권재원(안동) 30,000	권대성(안동) 30,000
권덕근(경기용인) 30,000	권오륜(경주) 30,000	권종준(안동) 30,000	권순구(원주) 30,000
권도현(서울강북) 30,000	권오수(안동) 30,000	권종현(합천) 30,000	권순채(서울송파) 30,000
권병선(서울동대문) 30,000	권오종(경기성남) 30,000	권종규(안동) 30,000	권영식(봉화) 30,000
권병환(서울강북) 30,000	권이섭(경기하남) 30,000	2020년 선납자	권영식(인천) 60,000
권보근(김포) 30,000	권인택(수원) 30,000	권갑현(영주) 30,000	권오섭(진천) 30,000
권순익(대구) 30,000	권일혁(화성) 30,000	권공립(군산) 30,000	권재호(산청) 30,000
권영기(평택) 30,000	권재모(산청) 30,000	권기백(경주) 30,000	권효택(경기양주) 30,000

● 납부기간 : 4. 27. ~ 5.29 ● 총 납부자 31명/지사 2곳 ● 총 960,000원

* 납부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중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권씨 종보 대금 납부 안내

종보 대금 3만원 납부는 100만 족친의 번영과 화합의 상징입니다.

♣ 2019년 종보 대금 지로용지를 2월호와 함께 2차 발송하였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동명이인 등으로 납부자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오니 통장 입금 시 입금자란에 입금자명과 거주지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계좌 : 농협 317-0009-7471-41(안동권씨 대중회)
국민 033237-04-006941(안동권씨 대중회)

♣ 문의전화 : 02-2695~2843-4

안동권씨 대중회